







# 산림복구전투장에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과학연구기관들에서  
나무들종과 산림조성, 산  
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문제들을 연구하여 풀  
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워야  
산림복구전투승리가 담보된다. 이  
렇게 놓고볼 때 산림조성사업에  
이나지 않아 하느라나나 연구과제를  
당의 사상과 정책을 편집하는 림  
장에서 수행해나간 국토환경보호  
상 산림연구원 과학자들의 일본  
세는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당정책을 위전으로

간주한 연구목표

미지않아 각 도들에는 당의 융  
대한 구상에 따라 철단기술이 도  
입된 현대적인 묘묘온실들이 일  
면마다 된다. 이런 온실들에서 나  
무모를 향해 두번 생산하자면  
기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그때나마 윤식작업의 자동  
화, 기계화뿐아니라 나무모생산  
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  
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현대적인 묘묘온실들이 일면  
한 정료를 갖춘 적합한 원료들을  
찾아내기 위한 풍랑보다 풍기  
의 낮과 밤이 흘렀다. 고난파  
시련에 걸친수록 자연지경의 정  
신력을 배양해나간 이들은 꿈꿀  
내 100% 국산화된 기질을  
만들어낼수 있는 풍과 풍기를  
놓았다. 특히 해당 지방의 원료  
를 가지고 기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서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각 도들에 일  
면별 현대적인 묘묘온실에서  
나무모생산을 탕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화, 공업화, 집약  
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답보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종자피  
복기기와 물질적양형판수장치를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열어가는 수림화의 지름길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에서

취운 길과 다른 하나는 100%

국산화된 우리것으로 환성하  
는 힘든 길이었다.

그들은 주지없이 두번의 길을  
택하였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실  
무작과제이기에 앞서 당의 국군  
화방침판침에 영하는 판점과 힘  
장에 관한 사상적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원료에 기초하여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로

연구의 축적방향이 정해지고 그  
에 따라 강력한 힘들이 펼쳐지

었다. 허리 않았다. 하지만 말거  
진 연구과제를 당의 사상판침  
선, 당정책을 확장으로 간주한  
연구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해당 단위들의 긍정한

면제에 계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절차를 최대화

하였다.

현대적인 묘묘온실들이 일면  
한 정료를 갖춘 적합한 원료들을  
찾아내기 위한 풍랑보다 풍기  
의 낮과 밤이 흘렀다. 고난파  
시련에 걸친수록 자연지경의 정  
신력을 배양해나간 이들은 꿈꿀  
내 100% 국산화된 기질을  
만들어낼수 있는 풍과 풍기를  
놓았다. 특히 해당 지방의 원료  
를 가지고 기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서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각 도들에 일  
면별 현대적인 묘묘온실에서  
나무모생산을 탕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화, 공업화, 집약  
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답보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종자피  
복기기와 물질적양형판수장치를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을 비약적  
으로 늘리는데서 제기되는 다른  
연구과제수행에서도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말보다 푸릇한 산림과학기술  
을 전파하고 당 제7차대회정신  
을 전파로위해야 한다는 판점과 힘  
장에 관한 사상적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원료에 기초하여  
기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로

연구의 축적방향이 정해지고 그  
에 따라 강력한 힘들이 펼쳐지

었다. 허리 않았다. 하지만 말거  
진 연구과제를 당의 사상판침  
선, 당정책을 확장으로 간주한  
연구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해당 단위들의 긍정한

면제에 계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절차를 최대화

하였다.

현대적인 묘묘온실들이 일면  
한 정료를 갖춘 적합한 원료들을  
찾아내기 위한 풍랑보다 풍기  
의 낮과 밤이 흘렀다. 고난파  
시련에 걸친수록 자연지경의 정  
신력을 배양해나간 이들은 꿈꿀  
내 100% 국산화된 기질을  
만들어낼수 있는 풍과 풍기를  
놓았다. 특히 해당 지방의 원료  
를 가지고 기질문제를 해결할수  
있는데서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각 도들에 일  
면별 현대적인 묘묘온실에서  
나무모생산을 탕이 바라는  
높이에서 과학화, 공업화, 집약  
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답보를  
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종자피  
복기기와 물질적양형판수장치를

적을 줄이는데로 의견이 합  
쳐졌다. 충청의 70일 전투와  
2000일 전투의 암자진 군파  
대불여 그와 관련한 연구사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평원군과 상원군, 대동군의  
일부면적과 포함한 지역들에서  
과학자들은 음풀을 초분처럼 깡  
깡 불태우며 창성이 깔나무로  
를 끌어 하루전에 가지자르기와  
순치기를 진행하고 산지에 옮겨  
설이 그 사리를 풀을 10~  
20%정도 더 높이수 있다는 것  
을 꾼데에 밝여주는 연구결과를  
나무의 잎수를 높여주는 우방증  
증의 방과 습지 대비 기술,  
DNA 표지자기 출을 이용한  
나무의 잎수별 방법 등을 해  
결 완성한 것을 미루어 떠벌여  
놓지 않은 연구결과를 다발  
적으로 전파하여 밭에 풀을  
걸 완성한 것을 미루어 떠벌여  
놓았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후면 산림파  
전총들을 해당한 비풀로 섞어  
여기 풀을 나무보리의 활성을  
1.5~2배정도 더 높이수 있었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들  
은 말로 써가 아니라 구성시와  
상장군의 일부 산들에 심은 후  
한해 동안에 1.5배정도 차별  
나무보리를 내놓았다.

당은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을 확증하였다. 대성구역과 정  
원군의 수설정보에 말하는 산지  
에 옮겨온 나무들이 현재까  
지도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는 사실은 이들의 연구결과를

증명해준다. 우방증의 저  
항성률을 높여주는 우방증  
증의 방과 습지 대비 기술,  
DNA 표지자기 출을 이용한  
나무의 잎수별 방법 등을 해  
결 완성한 것을 미루어 떠벌여  
놓았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후면 산림파  
전총들을 해당한 비풀로 섞어  
여기 풀을 나무보리의 활성을  
1.5~2배정도 더 높이수 있었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들  
은 말로 써가 아니라 구성시와  
상장군의 일부 산들에 심은 후  
한해 동안에 1.5배정도 차별  
나무보리를 내놓았다.

당은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기 현실에서 그 우방증이 확증  
된 우리식의 페라크립 용융과  
그 흐름위를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스트로브스소나  
무체종사의 개선과 관련된  
문제, 생물공학적방법으로  
수

을 풀어는 어느 한 나무의 저  
항성률을 높여주는 우방증  
증의 방과 습지 대비 기술,  
DNA 표지자기 출을 이용한  
나무의 잎수별 방법 등을 해  
결 완성한 것을 미루어 떠벌여  
놓았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후면 산림파  
전총들을 해당한 비풀로 섞어  
여기 풀을 나무보리의 활성을  
1.5~2배정도 더 높이수 있었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들  
은 말로 써가 아니라 구성시와  
상장군의 일부 산들에 심은 후  
한해 동안에 1.5배정도 차별  
나무보리를 내놓았다.

당은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 문덕군 산림경영소에서

영양단지제로 품제였다. 비료가  
떨어지는 현상을 없애면서도  
어린 나무모의 뿌리가 잘 내  
밀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재료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맞는 것이 평화롭게 서 있다는데  
군에는 그 원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해에 건설된 모제양묘  
장의 나무모온실에서는 나무  
보리를 풀종조종실의 블레이  
온도와 습도, 및 빛 등을  
조종하면서 키우기에 되어  
온실안에 여과제의 단을 설치  
하여 공간온도를 높였다.  
때문에 온실비단에서 만기 키울  
때보다 나무모생산을 1.7배  
이상 늘릴 수 있다.

당은 한 푸에 풀을 잊고 심장의  
박통을 맞추며 김정일에 의하여  
나무모를 내놓았다. 또한 시험  
연구완성한 일정한 농도의 영양  
액으로 부리를 처리한 나무보리를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본사기자 김성일

을 확증하였다. 대성구역과 정  
원군의 수설정보에 말하는 산지  
에 옮겨온 나무들이 현재까  
지도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는 사실은 이들의 연구결과를

증명해준다. 우방증의 저  
항성률을 높여주는 우방증  
증의 방과 습지 대비 기술,  
DNA 표지자기 출을 이용한  
나무의 잎수별 방법 등을 해  
결 완성한 것을 미루어 떠벌여  
놓았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후면 산림파  
전총들을 해당한 비풀로 섞어  
여기 풀을 나무보리의 활성을  
1.5~2배정도 더 높이수 있었  
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그들  
은 말로 써가 아니라 구성시와  
상장군의 일부 산들에 심은 후  
한해 동안에 1.5배정도 차별  
나무보리를 내놓았다.

당은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기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를 높은 온실에서 풀을  
나무모를 내놓았다. 그때나마  
이 특별한 성과를 더욱  
봉하고 하며 더 큰 승리를 얻  
아오기 위한 세세 행군길에 또  
다시 용약 멀려나았다. 지난 시

에는 원수님 계시면서 풀을  
나무모생산방법을

#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 집단적혁신의 길로 출발을 치는 지하의 전초병들

혁신으로 불리는 화대 광산에  
가서 어느 단위가 혁신의 앞장  
에 섰는가고 물으면 누구나 선  
두 대답하기 어려워 한다. 어느  
중대, 어느 소대 할 것 없이 모든  
단위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를 높이 달고 날마다,  
시간마다 위훈을 창조하며 출  
발을 고기 때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 앞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함성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애국자의 자세  
입니다.』

울며 헤롯의 첫날에도 광산의  
모든 맹장들에게는 말파소리가  
힘이 울려나왔다.

『광—방—』

그것은 듯길은 울려 전진총  
돌격전의 청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려는 이곳 일꾼들과 광부  
들의 드높은 평생의 합창이기도  
하였다.

그날 이른아침부터 맹장을 물  
돌아보면 광산지대인 박영철동  
들은 들풍중한 말파소리에 이어  
도한동안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  
음을 멈추었다.

『중대장동지, 새해의 첫  
말파를 이만하면 뜨겁게 세워  
나보면 김성운동무가 다음교대  
가 들어올 때까지 혼자서 막장

### 화대 광산 일군들 과

획히 불어맞았구만.』

그들은 김성운, 흥무성동무들  
이었다.

『말파카스가 죄 빼지지 않은  
막장에서 두개의 안전등불빛이  
회미에 보였다.

김성운동무는 꽁흔방부이고  
흥무성동무는 경일을 시작한지  
몇해 인되는 광부였다.

하지만 새해에도 광물증산으  
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  
려는 그 마음들은 하나같았다.

지난해 2001년 1월 1일  
새로운 밟파방법을 무단히  
연구하며 기적과 혁신의 앞장에  
서 기수가 되여 달려온 그들이  
였다.

(불같은 사람들이야.)

속으로 이렇게 뇌이하는 지배인  
의 머리에는 지난해 2001년 1월  
1일을 승리적으로 걸출하기 위한  
두성이 한창 벌어지던 때의 일  
이 되새겨졌다.

김성운증대일에는 뜻하지 않  
게 어느 한 막장이 놓락되는 난  
판이 조성되자 되었다. 그냥 초  
급일꾼들이 앞장선 가운데 중대  
는 융군 하장과 격려와 함께 일  
정복구를 한교대 시간에 끝내는  
상파와 이를하였다.

휴게실로 광부들의 등을 떠밀  
어보면 김성운동무가 다음교대  
가 들어올 때까지 혼자서 막장

을 다시 정려하려는 생각을 하  
던 때였다.

챙을 나선줄로만 알았던 소대  
장들이 어찌나 만히 막장에 들어  
서는 것이 아닌가.

『중대장동지, 오늘 우리는  
예전치 않았던 봄파때문에 당앞  
에 결의한 청두개 획수행에서 지  
장을 받았습니다. 밭걸음이 떨  
어지지 않아 들어섰습니다.

기어이 밀진 봄장을 하겠습니다  
니.』

경북구간두를 밀리느라 험해진  
손들에 또다시 청작기들을 으스  
러지게 들어뛰는 그 일정년전 모  
습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의 명령에 관찰하기 전에는 조국  
의 무든 하늘을 보지 말자고 훠  
쳐져 난판을 주저없이 끊고나간  
군인건설사들의 영웅적군상 그대  
로였다. ...

바로 그런 의지가 막장들에  
대해 히크이은 차량스럽고 빠  
쳤던 지단해였다.

말파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막  
장들을 물어보는 지배인의 가슴  
은 내내 뜨겁게 뜨거웠다. 새  
한 날마다 한동하고 퇴직할것을  
예상하게 『행령』 하였지만 어느  
막장도 비어있는 곳이 없었던것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사를  
피끓는 심장마다 세겨놓고 이

렇게 세해진군의 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광부들의 기세는 더더히  
높아졌다.

청년들이 파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유진소대는 광산에서 규  
를 있고 단합된 소대로 넘과 알  
려져 있다.

광산에서 소대가 전투력을 있는  
집단으로 물러나면 소대원들

로 유진동무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떠올리곤 한다.

세해진 그가 소대장사업법을  
갖자렸을 때였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  
면 날 이른이닝부터 청원군  
총석협동농장 제3작  
업반의 보전에는 거리를

가득히 달은 짐통을 지고  
달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한  
층집으로 펼쳐졌다.

『박동무는 소대가 낸 간계회  
을 수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소. 자기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 머리가  
숙여지구만. ...』

그날 이를부사아이는 박동  
무의 결혼식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 오갔다.

그로부터 열마후 년간에  
을 완수하던 날 밤동무는 소대  
원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르유  
진동무와 그의 애해가 지성들  
에 차운 결혼상을 마주하게 되

었다.

청춘남녀의 결혼상분이 아  
니다.

소대원들의 생활상에서도, 제대  
군인가정의 부역과 세미정에 살  
듯하게 불인 타일에도, 2001  
일전투기간 한 광부의 집에 일  
매지게 새로 솟아난 기와지붕에  
도 소대원들을 위해 남도르게  
당제 7차대회 결집관

에서 척기적인 전진  
로유진소대는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지 난해 7 0 1일 전투와  
2001일전투기간 앞선 군집방

법을 받아들여 편수발파의 기적  
을 창조하였고 막파기제아평을  
재생리용하고 편속식마팡기를  
새롭게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많  
은 기술혁신들을 생산에 빌어  
이야기부터 떠올리곤 한다.

로유진동무는 외로운  
전진하는 봄파동무를 뜨거운  
정열로써 뜨거운 군현을 향해

### 평원군 송석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기적의  
2016년 한해를 통하여  
비상히 망양된

제대원들의 생활상에서도, 제대  
군인가정의 부역과 세미정에 살  
듯하게 불인 타일에도, 2001  
일전투기간 한 광부의 집에 일  
매지게 새로 솟아난 기와지붕에  
도 소대원들을 위해 남도르게  
당제 7차대회 결집관

에서 척기적인 전진  
로유진소대는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지 난해 7 0 1일 전투와  
2001일전투기간 앞선 군집방

법을 받아들여 편수발파의 기적  
을 창조하였고 막파기제아평을  
재생리용하고 편속식마팡기를  
새롭게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많  
은 기술혁신들을 생산에 빌어  
이야기부터 떠올리곤 한다.

로유진동무는 외로운  
전진하는 봄파동무를 뜨거운  
정열로써 뜨거운 군현을 향해

『봄파는 봄파동무는 왜 나왔소.  
그 봄으로 어찌하고...』

2분조장 박정실동무의 앞을  
막아서며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지난해 모내기전투가 한창이  
던 어느 날이었다.

『봄파장동무는 왜 나왔소.  
그 봄으로 어찌하고...』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  
면 날 이른이닝부터 청원군  
총석협동농장 제3작업반원  
의 보전에는 거리를

가득히 달은 짐통을 지고  
달리는 사람들의 행렬이 한  
층집으로 펼쳐졌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은 밤새  
작업반원들로  
나온 봄파는 풍물비치로  
돌고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로  
되고 있다.

### 평원군 송석협동농장 제3작업반원들

아만 3, 4 분기의 농장원들, 모  
내기전투의 나날 밤길도 풍

물로 커들고 본조포전의 모내기  
상태를 풍물의 살벌에 하여 조영

회동무에게 험악한 날씨로  
해마다 농장원들 말아하고 농

장원들에게 험악한 날씨로

